

최근 일본군 ‘위안부’ 영화의 냉전 체제 재현 방식 : 「아이 캔 스피크」와 「히스토리」

김현경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위안부’ 영화의 재현 정치학
- 3 ‘말하는 서벌턴’: 냉전적 국제무대의 재상연
- 4 성찰하는 포스트메모리 세대의 국적
- 5 나가며

이 논문의 초고 일부는 2020 ‘(Re)thinking Time and Temporalities in Peace and Conflict’ Conference (Philipps University of Marburg, Center for Conflict Studies 개최)와 2020 Winter Special Lecture Series ‘The Memory of Wartime Sexual Violence, Space of Postmemory Generation’ (Free University of Berlin, Institute of Korean Studies 개최)에서 발표되었다. 적극적으로 토론해 준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2022-0174).

영화 「허스토리」와 「아이 캔 스피크」는 ‘말하는 서벌턴’으로서의 ‘위안부’와 ‘성찰하는 포스트메모리 세대’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기존 ‘위안부’ 영화와 다른 성취를 보여준다. 또한 제국 일본의 지배가 종결된 이후에도 착종, 지속되었던 냉전 체제 하 여성 몸과 섹슈얼리티의 동원 및 착취 그리고 우리 안의 가부장제에 대한 성찰을 서사화했다는 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공공 기억이 진전한 지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두 영화는 트랜스내셔널 법적 장에서 수행된 전 ‘위안부’들의 발화 행위를 1990년대 일본의 법정은 듣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 미국 의회는 세계 최초로 들었다고 재현함으로써 냉전의 한, 미, 일 관계를 재상연한다. 또한 증언을 전수받는 포스트메모리 세대가 철저히 한국인이라는 점은 ‘위안부’ 문제의 트랜스내셔널화와 복합적 시간성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 그 결과 성찰은 국경 바깥을 넘어가지 못 한다.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구성하는 식민주의와 냉전 체제의 착종이라는 복합적인 시간성은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은 이 질문이 멈춰 있는 지점이 한국 사회 ‘위안부’ 문제가 멈춰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공 기억이 진전시켜야 할 상상력을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국문핵심어: 일본군 ‘위안부’, 냉전, 포스트식민 냉전 체제, 「허스토리」, 「아이 캔 스피크」

1 들어가며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은 그 때까지 일상적 기억(vernacular memory)에 머물르고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로소 공공 기억(public memory)으로 진입시킨 최초의 사건이었다.¹ 이후 ‘위안부’ 문제는 트랜스내셔널 운동, 국제기구, 페

1 Gluck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각 사회의 기억 지형들을 논하면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미니스트 및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포스트제국 및 식민 국가의 정치와 가부장제 그리고 기억에 관한 첨예한 분석과 주장이 경합하는 장이 되어왔다. 영화는 이를 기록해 왔을 뿐 아니라 영상 언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제기함으로써 공공 기억의 형성에 기여해왔다.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영화는 관객들에게 깊은 동일화의 순간을 제공하고, 관객들은 은 이 감정을 함께 보는 타인들과 공유한다는 느낌을 갖는다. 영화를 통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집단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² 그 중에서 이 논문은 2010년대 후반에 제작, 상영된 두 편의 영화 「히스토리」(2018, 민규동)와 「아이 캔 스피크」(2017, 김현석)가 ‘위안부’ 문제의 구성에 냉전이 끼친 영향을 어떻게 숨겨진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이러한 재현이 현대 한국 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공 기억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는 지난 30년 간 꾸준히 제작되어 왔다.³ 연구자들은 2010년대 제작된 영화들이 그 이전 영화들과 비교해서 문제의식 및 재현 방식에 있어 질적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해왔다. 예컨대 강경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한 기록들이 피해자들의 과거에 대한 증언과 오늘의 고단한 삶,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시민단체 활동을 충실히 기록하여 추문으로 존재했던 ‘위안부’ 문제를 공공 기억화하는데 기여했다면 2010년대 극영화, 애니메이션 등 보다 다변화된 영화적 재현은 “포스트메모리 세대

대한 공식 기억(official memory)과 일상적 기억(vernacular memory) 그리고 개인적 기억(individual's personal past)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어떤 기억이 집중적인 공적 논쟁의 대상이 되면 그 과정을 거쳐 메타 기억(meta-memory)의 차원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Carol Gluck, “Operations of Memory: ‘Comfort Women’ and the World,” eds., Jager, Sheila Muyoshi and Rana Mitter, *Ruptured Histories: War, Memory, and the Post-Cold War in Asia*,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p.53-58. 그녀는 ‘공공 기억’(public memory)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논문에서 이 용어를 공적 논쟁의 대상이자 그 과정에 있는 특정 기억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 2 테사 모리스-스즈키, 김경현 역, 『우리 안의 과거-미디어·메모리·히스토리』, 휴머니스트, 2006, 168-173쪽.
- 3 1990년대 이전에 제작된 ‘위안부’ 소재 영화에 대해서는 김청강, 「‘위안부’는 어떻게 잊혀졌나? 1990년대 이전 대중영화 속 ‘위안부’ 재현」,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1호,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149-193쪽 참고.

(post-memory generation)” 재현이라 할 만한 새로운 윤리적 감수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⁴. 권은선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제작된 극영화들이 그 이전 영화들과 비교할 때 “트라우마에서 포스트트라우마로,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자매애에서 공동연대로의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한다.⁵ 박현선은 2010년대 제작된 「허스토리」와 「아이 캔 스피크」가 그 이전 영화와 다른 점으로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축적해 온 ‘위안부’에 대한 공적 논쟁과 기억들을 서사의 중요한 요소로 가져온다는 점에서 “메타기억”(meta-memory)의 장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한다.⁶

이 연구들은 모두 2010년대 후반기에 제작된 영화들이 ‘위안부’ 피해의 직접적 기록 단계를 넘어서 그간 축적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의, 피해자들의 활동과 변화, 후세대의 기억을 메타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대 후반기 영화들의 이런 경향은 ‘위안부’ 문제의 공적 이슈화 이후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그간의 변화가 재현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2010년대 이후 첨예해진 ‘위안부’ 문제 관련 상황들 예컨대 2011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2013년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출판 및 2014년 이에 대한 형사고소, 2015년 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전개된 소녀상 지킴이 운동 등은 앞으로 ‘위안부’ 운동과 공공 기억에 대한 재현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2015년 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는 그 배후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

-
- 4 포스트메모리 세대는 홀로코스트 연구자 마리언 허쉬(Marianne Hirsch)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후세대가 자신의 선조에 대해 갖는 독특한 기억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쓴 용어이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지 않은 후세대는 구술이나 개인적 유품을 통해 가족 내 문화적 공통성을 공유하여 공식 서사와는 다른 기억을 전수받는다. 강경래, 「위안부 피해자 영상의 “포스트-기억 세대” 양식으로서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읽기」, 『인문논총』 제75권 4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229-262쪽.
 - 5 권은선, 「증언, 트라우마, 서사-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의 일본군 ‘위안부’ 영화」, 『아시아 영화연구』 제12권 2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19, 7-32쪽.
 - 6 박현선, 「일본군 ‘위안부’의 영화적 기억과 크로노폴리틱스」, 『대중서사연구』 제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175-209쪽.

의 입김이 있었음이 알려지면서⁷ ‘위안부’ 문제 처리의 배후에 있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를 보다 선명하게 가시화했다. 1945년 제국 일본의 공식적인 종언 이후 본격화된 냉전 체제는 식민주의와 착종하여 ‘위안부’ 문제를 응결시켰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지속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한반도 분단이 상징하듯 우리의 삶에 미치는 냉전 체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위안부’ 문제 후세대의 문화적 기억에 식민주의와 냉전 질서의 착종이 어떻게 आरो새겨져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논문은 영화 「아이 캔 스피크」와 「허스토리」를 분석한다. 이 두 영화는 선행연구들이 주목한바 문학과 영화를 통틀어 이제까지의 ‘위안부’ 서사에서 그려지던 피해자와는 사뭇 다른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이들은 ‘침묵당한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법정, 미국의 하원 의원이라는 트랜스내셔널 법적 장에서 직접 국가의 책임을 묻는 ‘말하는 주체들’이다. 그런데 트랜스내셔널 법적 장에서 이들이 행하는 증언은 한국과 일본, 미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서 ‘위안부’ 문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흥미롭게 드러낸다. 더불어 전 ‘위안부’ 피해자가 그녀들의 말을 듣는 자리에 놓인 후세대가 이들과 맺는 관계가 서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만한 이 후세대는 포스트식민국가로서의 한국이 어떤 냉전 체제를 통과해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될 만하다.

이러한 분석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갖는 주요 책임의 엄중함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⁸ 본 논문이 궁극

7 손열, 「위안부 합의 100일, 한일관계는 어디로」, 『EAI 논평』, 동아시아연구원, 2016.4.12. [http://eai.or.kr/data/bbs/kor_report/201604121730282.pdf] 2022.2.20. 검색완료.

8 예컨대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문제는 동아시아 냉전 체제 하 미군 기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만의 특수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전후 동아시아 냉전 체제 하 미군 기지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박유하는 이러한 주장을 한국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으로 위치짓는데, 키쿠치 나츠노는 이를 비판하면서 ‘위안부’ 문

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한국 사회에서 식민주의와 냉전 체제의 유산이 서로 영커 지속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에 다다른 것이다.

2 ‘위안부’ 영화의 재현 정치학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후 「낮은 목소리」 3부작(1995, 1997, 1999, 변영주) 등 걸출한 다큐멘터리들이 피해자의 삶과 목소리를 기록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공 기억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오랫동안 공백 상태에 있었다.⁹ 이는 증언 직후부터 여성 학계를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원인, 강제동원 과정 및 위안소에서의 폭력 경험, 전쟁과 식민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된 한국 사회 민족주의 문화 권력 및 일상적 가부장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¹⁰ 재현에 대한 관심 이전에 밝혀야 할 사실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기 때문일 것이다.

2016년 초 개봉한 영화 「귀향」(2016, 조정래)을 둘러싼 비평과 논쟁은 ‘위안부’의 영화적 재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영화는 14년이라는 제작기간, 7만 5천명의 펀딩 참여자 숫자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으며, ‘위안부’ 소재 영화로는 매우 드물게 3백 5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귀향」의 흥행은 2013년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출판과 논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라는 일련의 사건들의 흐름에서 이해가

제를 식민주의 비판의 틀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근대 국민국가는 식민주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상대로 유흥업 허가를 받은 가게를 가리키는 A 사인(sign) 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국 일본의 식민주의가 전후 미일 공동의 것으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준다.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3.; 키쿠치 나츠노, 「내셔널리즘에서 식민주의로: 오키나와 A사인 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송연옥·김귀옥 외, 선인, 2017, 137-161쪽 참고.

9 「낮은 목소리」에 대한 연구들은 김청강, 앞의 글, 152-153쪽의 각주 6 참고.

10 ‘위안부’에 관한 한국 여성학계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김현경, 「냉전과 일본군 ‘위안부’: 배봉기의 잊혀진 삶 그리고 주검을 둘러싼 경합」, 『한국여성학』 제37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21, 204-208쪽 참고.

능한데¹¹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의 비평이 제출되었다.¹² 그 중에서 권은선은 죄책감을 가진 포스트 메모리 세대의 재현이 어떻게 가해자의 시각으로 전도되는가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위안부’와 같이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폭력을 재현할 때 어떤 정치학과 윤리학적 태도 및 미학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¹³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귀향」과 「눈길」(2015, 이나정)을 비교한 연구들 또한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폭력이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했다.¹⁴

「귀향」 현상을 전후로 하여 ‘위안부’ 영화의 재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전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되었던 ‘위안부’ 소재 대중 영화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예컨대 최은주는 전후 일본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등장시킨 소설 『춘부전』이 1950년에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미연합군총사령부의 검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했다.¹⁵ 또한 최은수는 1960년대 제작된 영화 「춘부전」(1965, 스즈키 세이준)과 「피와 모래」(1965, 오카모토 기하치)의 여주인공들이 이 시기 물밑 듯 간행된 참전 병사들의 전기에서 등장한 자발적인 성매

-
- 11 권은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이미지화 한다는 것의 의미: 영화 〈귀향〉의 성/폭력 재현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4권 1호, 한국여성연구원, 2017, 3-28쪽.; 손희정, 「기억의 젠더 정치와 대중성의 재구성: 대중 ‘위안부’ 서사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234-261쪽.
- 12 권명아, 「‘대중혐오’와 부대낌의 복잡성」, 『문학동네』 통권 87호, 2016 여름, 530-539쪽.; 권은선, 앞의 글, 2017.; 손희정, 앞의 글.; 송효정, 「현재적 의미가 봉쇄당한 고통의 무기력함」, 『문학동네』 통권 87호, 2016 여름, 540-549쪽.; 장수희, 「비명이 도착할 때: 〈귀향〉을 둘러싼 각축전과 말없는 비평」, 『여/성이론』 제34호,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6, 226-236쪽 등이 있다.
- 13 권은선, 앞의 글, 2017.
- 14 권은선, 「일본군 위안부 영화의 자매애와 증언전수 가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414-421쪽.; 손희정, 앞의 글.; 주유신, 「위안부 영화와 역사쓰기의 새로운 도전: 〈귀향〉과 〈눈길〉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51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95-111쪽.
- 15 최은주, 「전후 일본의 조선인 위안부 표상, 그 변용과 굴절: 춘부전의 출판/영화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후 일본의 전쟁기억/표상/젠더」, 『페미니즘 연구』 제14권 2호, 한국여성연구원, 2014, 3-28쪽.

때 여성이자 유사연애의 대상인 ‘위안부’ 이미지를 표상한다고 분석했다.¹⁶ 김청강은 「사르빈 강에 노을이 진다」(1965, 정창화), 「춘부전」, 「여자정신대」(1974, 나봉한), 「여자정신대」(1985, 이상언, 정정),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91, 지영호)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1990년대 이전 한국 영화의 남성 폭력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시각과 한일 양국 영화에서 드러나는 남성 공모를 밝혔다. 이러한 영화들이 피해자들을 침묵시킨 공공 기억의 주요 기제로 작동했다는 것이다.¹⁷

그런데 이 연구들이 다루는 영화들이 ‘위안부’ 문제 구성에서의 냉전 체제의 영향력을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본 논문의 관심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최은주는 미군이 「춘부전」의 영화화 과정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형상이 조선인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실제로 미군이 정말로 꺼린 것은 전후 국가적 차원에서 미군을 위한 성매매 여성의 체계적 조직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에서 미군 ‘위안부’의 형상이 가시화됨으로써 해방군으로서의 미군 이미지가 악화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¹⁸ 또한 영화 「춘부전」과 「피와 모래」는 1965년 한일 회담 즈음의 제작되었는데, 이는 미국 주도 냉전 체제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일본의 위치성을 드러낸다.¹⁹ 이 시기 남한에서 제작된 「사르빈 강에 노을이 진다」의 ‘위안부’ 표상에 주목한 김청강은 그녀들이 당시 ‘유엔마담’이나 ‘양공주’로 불린 미군 ‘위안부’와 유사하게 재현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1950년대 한국군과 연합군 대상의 ‘위안부’ 그리고 1960년대 미군 대상 기지촌 여성들이 구분되지 않았던 당시 인식을 엿볼 수 있다.²⁰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한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의 착종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김지언은 「사르빈 강에 노을이 진다」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인 예비 총후부인, 위안부이자 간호사,

16 최은수, 「1960년대 일본의 전쟁기억/주체/‘위안부’-‘위안부’ 언설과 영화표상」, 『아시아 여성연구』 제58권 3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9, 153-176쪽.

17 김청강, 앞의 글. 149-193쪽.

18 최은주, 앞의 글. 11-17쪽.

19 최은수, 앞의 글. 160-166쪽.

20 김청강, 앞의 글. 166-170쪽.

버마 여성 게릴라 대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방을 서사적 배경으로 한 이 영화가 한국 사회의 베트남 전에 대한 가해의식과 이에 대한 거부를 징후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라고 주장한다.²¹

한편 본 논문이 다루는 「아이 캔 스피크」와 「허스토리」는 「귀향」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이후 개봉하였으며 소녀나 성애화된 대상이 아닌, 법정 싸움을 하는 피해자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그린 새로운 재현으로 평가받았다. 물론 다큐멘터리는 초기부터 말하는 주체이자 법정 싸움의 주체로서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주목했지만, 대중 이미지-서사로서의 극영화의 주인공과 서사전개는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공공 기억의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허스토리」와 「아이 캔 스피크」의 주인공들이 피해에 사로잡혀 언어를 잃어버린 이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 분투해 온 “여성-어른-시민”²²인 것은 한국 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간 투쟁해온 바와 축적해온 지식 및 정치와 윤리감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은 특히 「아이 캔 스피크」가 제시한 “말하는 주체로서의 서벌턴”²³ 상이 “후세대로의 증언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포스트-기억 공동체” 형성을 보여준다²⁴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기억 공동체가 철저히 유사가족적이며 또한 민족국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허운은 전 ‘위안부’를 받아들이는 시장 공동체와 9급 공무원 형제 그리고 성공한 여성 기업가 모녀 관계의 확장이 한국이라는 국가 경계 내에 머무른다고 비판한다. 특히 다큐멘터리 「내 마음은 지지 않았다」를 참조로 한 것이 분명한 「허스토리」의 경우 전자가 송신도 할머니와 그녀의 법정 싸움을 지지하고 지원한 일본인들과의 연대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후자는 이를 삭제했다고 지

21 김지연, 「냉전기 한국사회의 기억의 정치학: 〈사르빈 강에 노을이 진다〉속 군인과 ‘위안부’ 표상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79-118쪽.

22 오혜진, 「무수한 ‘말 걸기’의 역사, ‘아이 캔 스피크」, 『한겨레』, 2017.10.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3297.html] 2022.2.20. 검색완료.

23 권은선, 앞의 글, 2019, 20-21쪽.

24 강경래, 앞의 글, 249-256쪽.

적한다.²⁵ 이해령은 「아이 캔 스피크」에서 주인공 옥분의 ‘위안부’ 등록을 대리한 구청 직원과 그의 동생을 인격화된 국가기구로 읽는다.²⁶ 문제는 이해령의 지적 대로 국가기구를 대상으로 커밍아웃을 감행하고 선한 시민들을 만나기 전 ‘위안부’들의 시간에 대한 영화 및 서사의 상상력은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공백의 시간을 가리키는 하나의 명명으로서 ‘포스트식민 냉전 체제’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이 용어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945년 제국 일본의 공식 종언 이후에도 지속된 식민주의와 이즈음 확립된 냉전 질서가 착종되어 형성된 제도적, 담론적 구성체”²⁷를 일컫는다. 또한 비서구 사회 열전(Hot War)을 근간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냉전(Cold War)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선언된 탈냉전이 서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시대 인식임을 비판한 동아시아 및 페미니스트 지식인들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²⁸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위안부’ 영화의 냉전 체제 재현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1990년대 이전 ‘위안부’ 소재 영화들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상적 기억을 지배하고 있었던 남성중심적 시각과 식민주의 그리고 냉전 체제의 착종을 은밀하게 드러냈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이후 제작된 영화들에서 냉전 체제는 어떻게 재현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공공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이에 개입하고자 한다.

25 허윤,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소녀와 할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29호, 한국여성사학회, 2018, 146-151쪽.

26 이해령, 「그녀와 소녀들-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116-120쪽.

27 김현경, 앞의 글, 204쪽.

28 몇 가지 예로 Elaine H. Kim and Chungmoo Choi(eds.),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New York: Routledge, 1997.; Kuan-Hsing Chen, *Asia as Method: Toward Deimperi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Heonik Kwon, *The Other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Lisa Yoneyama,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등이 있다.

3 ‘말하는 서벌턴’: 냉전적 국제무대의 재상연

영화 「아이 캔 스피크」와 「허스토리」의 주인공들은 앞서 지적했듯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발화할 수 없는 기존 영화에서의 ‘위안부’ 피해자와는 다르게 지역 공동체와 트랜스내셔널 법정 장에서 증언하는 “말하는 주체로서의 서벌턴”²⁹이다. 그러나 전 ‘위안부’들의 발화가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장에서 행해질 때 그리고 이를 다시 한국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수용할 때, 발화 행위를 완결시키는 것으로서의 듣기는 좀 더 정치하게 고민해야 하는 쟁점으로 떠오른다. 서벌턴의 발화 행위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박의 논문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는 지배적인 담론 질서가 서벌턴의 발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식론적 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이 때 서벌턴의 발화 행위는 들려지지 않거나 들렸어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완결되지 못 한다.³⁰ 그렇다면 서벌턴의 발화가 들려지고 이해된 것으로 보일 때 그것이 어떤 인식론적 틀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탐문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자 했으며 이 발화 행위를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어떻게 재현하는가? 또한 1990년대 관부재판에서 피해자들은 어떤 증언을 했으며 영화 「허스토리」는 이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미국 사회의 맥락에서 ‘위안부’ 사죄 결의안(HR 121)이 갖는 의미와 일본 사회의 맥락에서 관부재판이 갖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위안부’ 사죄 결의안부터 살펴보자. 페미니스트 인류학자 요네야마는 이 결의안의 전사로 1999년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이 수정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존에 나치에 의한 박해와 강제 노동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354조 6항을 나치 동맹국이 가한 가해 행위로까지 넓혀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 탈냉전의 흐름은 국민국가들

29 권은선, 앞의 글, 2019, 20-21쪽.

30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eds., Cary and Lawrence Grossberg,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Basingstoke: Macmillan, 1988, pp.271-313.

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진행된 전후 처리의 불충분함과 비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했다. 관부재판의 경우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법적 변화는 아시아 이민자들을 의식한 조치로 미국 정치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유럽 그리고 백인 중심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의 주류 기억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아시아인들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³¹

2001년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이 조항이 “사기업의 노예 노동 강제 동원에 대한 판단은 민사 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기에 국가 간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미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발생한 피해와 일본이 야기한 피해에 대해 비일관적이며 비대칭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지적했다³². 이는 물론 전후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와 맺는 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후 아시아에서 제국 일본의 유산을 지우면서 계승한 새로운 제국이였다. 중요한 것은 2007년 미국 연방의회 하원 ‘위안부’ 결의안이 이러한 측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제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았던 극동군사재판(1946-1948) 그리고 일본을 냉전의 하위 동맹 파트너로 국제사회에 복귀시킨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에서 미국이 한 결정적인 역할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전후 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촌과 성매매 산업의 성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들은 모두 ‘위안부’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들이다. 그러므로 2007년 미국 연방의회 하원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탈냉전 흐름에서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냉전 미 제국주의를 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주류 기억의 다변화—잔인한 지배자 일본으로부터 아시아인들을 해방시킨 미국이라는 이미지의 강화—와 보편적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봉합한 장이기도 한 것이다. 요네야마는 이를 “일본 전쟁 범죄의 미국화”(Americanization of Japanese War Crime)라고 명명한다.³³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옥분의 하원에서의 증언 장면은 서벌틴의 발화가 “공감

31 Lisa Yoneyama, *op. cit.*, pp.149-153.

32 *ibid.*, pp.154-158.

33 *ibid.*, pp.147-153.

적 청중”³⁴의 듣기에 의해 완결되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위안부’ 이슈가 국제 관계라는 무대에서 무엇으로 기능하는가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영화는 이를 은밀하게 누설한다. 옥분은 증언이 끝난 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남동생 정남과 상봉한다. 그는 옥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민재가 옥분이 그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전화로 알리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으며 할 말도 없다고 야멸차게 거절한다. 아마도 한국 전쟁 중에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을,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정남은 존재 자체로 아시아 냉전의 시작인 한국 전쟁과 미국의 새로운 지배력을 체화한,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중심 지배 질서에 동화되고자 한 한국계 이민자 나아가 한국인들의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옥분이 미국 하원에서 증언을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자 달려와 서툰 한국어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울먹거리는 장면은 ‘위안부’ 결의안이 한국계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로의 통합 및 이들의 시민권과 맺는 모종의 관계를 시사한다.

영화는 이 장면을 짧게 처리한 후 자막을 통해 ‘위안부’ 결의안이 “국제사회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최초로 공식 인정한 사건”이라고 천명한다. 이 자막은 실제로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증언한 이용수 할머니의 당시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사실감을 더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적시한 문장이라기보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상상력은 표현한 문장이다. 이보다 앞선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이미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여 히로히토 천황의 책임을 물었으며, 나아가 연합국들 또한 전후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한 초기 책임(initial responsibility)이 있음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³⁵ 감독 및 영화 제작 관계자들은 여성국제법정이 시민법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최초로 공식 인정’하는 국제사회가 될 수 없

34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 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3, 53-55쪽.

35 강가람, 「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본 초국적 여성 연대의 가능성-한일 사회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6.; Lisa Yoneyama, *op. cit.*, p.126.; <https://www.internationalcrimesdatabase.org/Case/981/The-Prosecutors-and-the-Peoples-of-the-Asia-Pacific-Region/> 2022.2.22. 검색완료.

다고 본 것은 아닐까? 이를 지적하는 관객들의 반응이나 비평,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정에 대한 상상이 여전히 미국을 정점으로 하여 국민 국가들 간 위계질서에 기반한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라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제 관부재판의 재현에 대해 살펴보자. 법정 드라마로서의 「히스토리」가 관부재판에 대해 또렷하게 진경화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이에 대한 일본 법원의 권위주의적 반응과 일본 대중의 혐한적 반응이다.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재판과정에 집중하면서 ‘위안부’를 다룬 다른 영화들과 유사하게 민족주의적 공분을 자아낸다. 그러나 관부재판을 지원한 일본 내 모임의 사무국장인 하나후사 도시오에 따르면 재판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여론조사에서 50퍼센트가 넘는 일본 국민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지지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영화에 재현된 혐한 발언과 과격한 차별 언동은 1990년대 당시가 아니라 ‘위안부’ 운동이 진행되고 신자유주의화가 심화되어 혐오 발언이 공공연해진 2010년대 현재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³⁶ 이처럼 1990년대는 포스트식민 냉전체제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가능성이 국경을 가로질러 실험되던 시기였지만, 이 영화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³⁷

사실 관부재판의 판결은 일본 법원이 한국인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한 일방적인 판결이라고 간단히 결론내릴 수 있는 판결은 아니다. 이 재판은 전후 일본국 헌법의 틀 내에서 ‘위안부’ 제도를 여성 차별과 민족 차별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인권침해로 인정했으며, ‘위안부’로서의 피해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원고뿐 아니라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한,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서의 첫 승소 사례다.³⁸ 영화의 마지막에 이러한 판결 내용이 제

36 하나후사 도시오·하나후사 에미코, 고향옥 역, 『소송과 한국의 원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한 28년의 기록-관부재판』, 도토리숲, 2021, 51-55쪽.

37 이런 점에서 허윤은 이 영화가 주요하게 내세우는 여성연대는 민족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라고 적절하게 지적한다. 허윤, 앞의 글, 151쪽.

38 이 판결은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었기에 일본 정부는 항소했으며 결국 2001년 항소심 판결과 2003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1심 재판 승소 판결이 파기되었다. 하나후사 도시오·하나후사 에미코, 앞의 책, 59-127쪽. 한국 사회의 ‘위안부’에 대한 정치적, 대중적

시되지만 문제는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재현이다.

전후 일본 헌법은 헌법 9조를 통해 일체의 군비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못 박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지만,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도외시한 채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러니 이러한 한계 내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법하라는 판결을 내린 재판의 과정은 당시 글로벌 탈냉전의 맥락에서 가해국의 책임과 도의적 국가의 책임, 식민 지배 및 전쟁에 대한 배상과 기본 인권 보장 등의 까다로운 법적 이슈가 논의된 역동적인 장이었음에 틀림없다.³⁹ 그러나 영화는 이런 과정을 재현하지 않는다. 권은선은 이 영화에서 재판이라는 서사적 틀과 법정이라는 서사 공간은 ‘위안부’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이슈를 다루는 가능성이 아니라 ‘위안부’ 증언을 담아내는 동시에 지배 권력의 상징으로, 이들의 발화행위가 완수되지 못 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한다고 분석한다.⁴⁰

요컨대 영화 「허스토리」와 「아이 캔 스피크」는 말하는 주체로서의 ‘위안부’ 피해자가 주인공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서벌턴의 발화가 완성되는 것으로서의 듣기 수행을 삭제하거나 (「허스토리」) 그 맥락을 도외시함으로써 (「아이 캔 스피크」) 냉전의 한, 미, 일 관계를 재상연한다. 이는 영화의 한계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공 기억이 멈춰 있는 지점이다.

4 성찰하는 포스트메모리 세대의 국적

관심과는 별개로 관부재판을 다룬 개별 연구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허스토리」에서의 재판과정 재현의 전형성은 영화의 한계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트랜스내셔널화 과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을 드러낸다. 예외적인 예로 문정숙의 실제 모델인 김문숙의 일본 출간 단행본 『조선인 군대 위안부』에 대한 연구로 이지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 초기 증언의 교차적 듣기: 『조선인 군대 위안부(朝鮮人軍隊慰安婦)』(1992)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1993, 1997)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42호, 역사학연구소, 2021, 61-96쪽 참고.

39 이에 대해서는 하나후사 도시오·하나후사 에미코, 앞의 책, 65-100쪽 참고.

40 권은선, 앞의 글, 2019, 21-22쪽.

두 작품은 말하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이들의 말을 듣고 관계를 맺는 후세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아이 캔 스피크」의 9급 공무원 민재와 「허스토리」의 여행사 사장 문정숙은 전 ‘위안부’ 주인공들이 트랜스내셔널 법적 장에서의 증언이 가능하도록 돕는 지원자이자 통역자로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지만 이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먼저 「허스토리」의 문정숙은 부산에서 성공한 여행사 사장이자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는 워킹 독신 맘이다. 또한 그녀는 부산여성경제인연합 모임의 주축 멤버로서 자신의 성공을 남편의 덕으로 돌리는 친한 후배의 말에 여자들 스스로 잘난 척을 해야 한다며 큰 소리를 치고, “돈이 내 좋다고 따라다닌다”고 서슴 없이 말하는, 한국 영화에서 매우 보기 드문 여성 인물이다.⁴¹ 더욱 흥미로운 설정은 문정숙이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대변자로서 관부재판까지 이끌게 된 최초의 계기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아니라 그녀의 여행사가 ‘기생관광’을 주선하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어긴 죄로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당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후배의 권유로 여행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신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문정숙은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그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기생관광은 문정숙을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게 한 계기에 그치지 않는다. 극중에서 비록 인물들 간의 몇 마디 대사로 처리되기는 하지만, 관객들은 이를 통해 문정숙이 기생관광에 자신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팀장을 고용해 여행사의 주 수입원으로 성장시켰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화 초반 이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된 문정숙은 일본인 남

41 말하자면 문정숙은 한국 전쟁 이후 호황을 누렸던 부산 지역 경제의 한 주축이었던 여성들을 형상화한 인물인데, 이는 그간 현실에서 존재해왔지만 서사의 주인공인 적은 없었던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역 여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측면이 있다. 이는 물론 2015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 관객들의 여성 영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형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허윤, 앞의 글, 148-151쪽과 웹진 결 편집팀, 「대중매체를 통해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의 재현 〈3부〉-재현물로서 〈허스토리〉의 성공과 실패」, 2022.2.7. [<https://kyeol.kr/node/154>] 2022.2.20 검색완료, 참조.

성 관광객의 죽음을 경찰서에 신고한 여행사의 젊은 여직원을 나무라는 동시에 팀장에게는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해고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피해자들이 문정숙의 여행사가 기생관광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이 때 그녀는 영화 초반부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로 자신의 책임을 시인한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 한 피해자의 위증에 얽힌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과 교차 편집되어 극의 클라이막스를 구성한다.

주지하듯 기생관광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와 더불어 냉전기 발전국가 대한민국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동원하여 자본축적을 꾀한 대표적인 사례다. 박정미는 기생관광이라 불린 이 시기의 성매매관광정책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서 제3세계 발전전략의 하나로 관광을 정책적으로 권한 미국의 영향력을 든다.⁴² 그런데 이 때 권유된 관광의 주요 내용은 제 1세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광이었다. 미국 상무성, 대외원조처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1세계 남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적 서비스를 관광 상품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1968년 “우리 나라 특유의 한국요정과 기생을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담은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⁴³ 기지촌을 외화벌이의 주요 장소로 수단화한 한국 정부에게 기생관광은 크게 다른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한일 관계 정상화, 경제 성장, 그리고 일본과 대만의 단교를 이유로 일본 남성들이 주요 고객 집단으로 부상했고, 부산은 이들의 주요 기생관광지 중 하나로 부상했다. 1972년 발간된 [한국관광자원총람]은 일본인의 부산 관광 추천 코스로 “시청 앞→용두산→송도→해운대(나이트클럽)→

42 1958년 미국 상무성은 아시아 관광산업의 전망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고 1961년 케네디 정부는 [국제여행법]을 제정했으며 유엔은 1967년을 ‘국제관광의 해’로 지정한다. 이는 냉전 체제 하에서 계속해서 정치,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린 제 3세계 국가들을 관광산업을 통해 자본주의 주도 경제에 통합시키려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으며, 미국과 유럽 자본 주도의 항공사, 호텔, 여행사 등 여행 산업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박정미, 「발전과 섹스: 한국 정부의 성매매관광정책, 1955-1988년」, 『한국사회학』 제48권 1호, 한국사회학회, 2014, 235-264쪽.

43 박정미, 앞의 글, 242쪽.

동래온천(기생파티)”를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⁴⁴ 이 시기부터 한일교회협의회 소속 한일의 교회여성단체들이 기생관광 반대운동을 시작했고, 1988년 이 모임 세미나에서 윤정옥의 일본 현지 ‘위안부’ 답사를 보고한 것을 기점으로 ‘위안부’ 운동이 조직화되었다.⁴⁵ 기생관광 반대운동은 국내적으로는 1993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가 성매매관광 근절을 선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국제적으로는 냉전 체제 하 아시아 국가들 간의 고르지 않은 경제 발전 그리고 그것의 성애화되고 위계화된 상태를 드러냈다.⁴⁶ 1991년 부산의 한 여행사에서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는 영화 「히스토리」에서 해고당한 팀장이 문정숙을 찾아와 “솔직히 기생관광 말고 부산에 뭐 볼 게 있다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거 알고 저 스카우트하신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매출 늘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죽어가는 회사 심폐 소생 시켜놨더라는 이제 와서 똥 묻은 개 취급이나 하고…”라고 항의하는 장면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요컨대 문정숙은 여성들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동원했던 냉전 체제 하 발전국가 시기에 이에 공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당시 보통 한국인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 영화는 그런 그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험에 맞닥뜨리면서 자신이 취한 이익의 토대를 깨닫고 성찰하게 되면서 포스트메모리 세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험을 전수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서사의 중요한 축으로 그리고 있다. 문정숙이 왜 ‘위안부’ 문제에 진심으로 나서게 되었는지를 묻는 친한 여성 후배에게 “부끄러워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라고 말하는 대사는 문정숙의 성찰과 각성의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 즉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가 종결된 이후에도 착종, 지속되었던 냉전 체제 하의 여성 몸과 섹슈얼리티의 동원 및 착취 그리고 그를 통한 자본축적을 ‘위안부’ 문제와 관련지어 한국 사회가 성찰해야 할 지점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그간 ‘위안부’를 다룬

44 문재원·조명기, 「관광의 경로와 로컬리티-부산관광담론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 58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825-860쪽.

45 박정미, 「성 제국주의, 민족 전통, 그리고 ‘기생’의 침묵-‘기생관광’ 반대운동의 재현정치, 1973-1988년」, 『사회와 역사』 제10호, 한국사회사학회, 2014, 405-438쪽.

46 Lisa Yoneyama,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p.28.

다른 영화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 영화의 성취이다.

그러나 영화는 문정숙을 그리는 만큼의 섬세함을 또 다른 포스트메모리 세대에 대해서 발휘하지 않는다. 변호사 이상일은 「허스토리」의 문정숙과 함께 관부재판을 이끄는데, ‘위안부’와 함께 제국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징하는 ‘재일교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가 일본 사회에서 당한 차별은 관부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상일은 성과를 중시하는 문정숙과 다르게 과정에 초점을 두고 힘있는 자의 일방적 지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상일이 보여주는 문정숙과의 차이는 문정숙의 변화와 성장을 끌어내는 일종의 촉매제로서만 재현된다.

재일교포는 제국 일본의 지배 뿐 아니라 동아시아 냉전 체제를 상징한다. 남한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교섭 과정에서 국민등록을 일본 영주 허가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재일조선인의 남한으로의 포섭 즉 ‘재일조선인의 재일교포화’를 위한 것이었다. 신설된 ‘협정영주’ 자격은 재일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를 진전시킨 측면이 있지만 남한과 연결된 민단과 북한과 연결된 총련을 두고 재일조선인 사회 내 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조경희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재일조선인들에게 국적은 인권이나 민족자결권의 근거이기보다는 분단체제 하 경쟁의 도구였다고 지적한다.⁴⁷

재일교포로서 이상일의 이같은 복잡한 조건은 문정숙의 성찰이 대변하는 포스트 식민 냉전 체제에서의 ‘위안부’ 문제 구성과 충분히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영화는 이를 누락한다.⁴⁸ 그리하여 이상일은 문정숙의 변화를 보다 두드러지게 하는 캐릭터에 그친다. 이 영화가 문정숙과 이상일을 배치하는 방식은 기존의 남성 주인공 중심 서사-이미지가 주인공 남성의 성장을 위해 매력적인 가능성을 담지한 여성 인물을 소모적으로 배치한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성별 역전은 한국인과 재일교포의 위계적인 배치와 중첩되어 그 급진적인 의미가 퇴색된다.

47 조경희, 「4장. 한일협정 체제하 재일조선인의 국적과 분단 정치」, 『‘나’를 증명하기-아시아에서의 국적·여권·등록』, 이정은·조경희 편, 한울아카데미, 2017, 119-144쪽.

48 이런 면에서 다큐멘터리 「침묵」(2016, 박수남)이 재일조선인 감독의 위치성과 ‘위안부’ 문제를 함께 다루는 방식은 주목할 만 하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민재가 전 ‘위안부’ 옥분을 위해 나서게 된 데에는 문정숙이 성찰하는만큼의 과정도 필요하지 않다. 민재는 미국 유학 후 건축가가 되고 싶었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한국에 돌아와 9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동생을 돌보는 인물이다. 그런 틈틈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민재는 신자유주의 시대 자기계발하는 청년의 전형이다. 그런 민재가 옥분의 과거를 알게 된 후 그녀에게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데는 별다른 계기가 없다. 이는 ‘위안부’ 이슈가 선한 신자유주의적 세계 시민으로서의 한국 청년들에게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미안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슈로 일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해령은 이들을 국가기구의 인격화된 형상으로 보았고⁴⁹ 허윤은 이 선량한 시민들이 ‘위안부’ 기억의 상품화와 대중화 흐름에서 내적 고민과 해석 없이 상품 소비를 통해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경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⁵⁰ 이 해석들은 한국 사회가 1980년대 말 이후 민주화, 탈냉전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신자유주의화를 거치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또 수용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이는 물론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분투해 온 성취일 수 있지만, 온전히 성취라고만 보기에 이 매끈한 수용은 어딘가 미심쩍다. 후기 식민과 후기 자본주의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와 무리 없이 만나는 ‘위안부’ 이슈는 이 문제의 후기 식민-자본주의적 구성을 질문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의 현재성이 사라질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박제된 과거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두 영화는 냉전 체제 하 한국 사회의 여성 섹슈얼리티 동원을 성찰하거나 (「허스토리」) 별 다른 계기 없이 전 ‘위안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아이 캔 스피크」) 선량한 시민들을 증언 전수의 가능성을 지닌 포스트메모리 세대로 재현한다. 이들은 선행연구들이 상찬한바 포스트메모리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이 공동체는 철저히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위안부’ 문제 자체가 국제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메타 기억으로서의 트랜스내셔널 기억이

49 이해령, 앞의 글, 143-145쪽.

50 허윤,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기억의 물화-일본군 ‘위안부’ 표상과 시민다움의 정치학」,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021, 375-407쪽.

된 지 오래라는 점을 감안할 때⁵¹ 한국 사회의 공공 기억은 ‘우리 한국인의 기억’을 넘어서서 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본 논문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후세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허스토리」와 「아이 캔 스피크」를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서의 냉전의 지속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재현이 한국 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공 기억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냉전 체제는 그 자체가 ‘위안부’ 문제의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공산 국가와의 체제 대결을 위해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서방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지속시켜왔다. 아시아의 탈식민화는 뒤이은 냉전 체제의 공고화로 불가능해졌고 지금까지 많은 역사 관련 분쟁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화 「허스토리」와 「아이 캔 스피크」는 ‘말하는 서벌턴’과 ‘기억하는 포스트메모리 세대’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기존 ‘위안부’ 영화와 다른 성취를 보여준다. 또한 제국 일본의 지배가 종결된 이후에도 착종, 지속되었던 냉전 체제 하 여성 몸과 섹슈얼리티의 동원 및 착취 그리고 우리 안의 가부장제에 대한 성찰을 서사화했다는 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억이 진전한 지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두 영화는 트랜스내셔널 법적 장에서 수행된 전 ‘위안부’들의 발화 행위에 대해 1990년대 일본 법정은 듣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 미국 의회가 세계 최초로 들었다고 재현함으로써 냉전의 한, 미, 일 관계를 재상연한다. 또한 증언을 전수받는 포스트메모리 세대가 철저히 한국인이라는 점은 ‘위안부’ 문제의 트랜스내셔널화와 복합적 시간성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 그 결과 성찰은 국경 바깥을 넘어가지 못 한다.

51 Carol Gluck,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eds., Jie-Hyun Lim and Eve Rosenhaft, *Mnemonic Solidarity: Global Interventions*, Cham: Palgrave Macmillan, 2021, pp.73-104.

앞으로의 한국 영화는 어떻게 ‘위안부’ 문제의 트랜스내셔널성과 복합적 시간성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은 이 질문이 한국 사회 ‘위안부’ 문제가 멈춰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공 기억이 진전시켜야 할 상상력을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현석, 「아이 캔 스피크」, 2017.

민규동, 「허스토리」, 2018.

단행본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3.

테사 모리스-스즈키, 김경현 역, 『우리 안의 과거-미디어·메모리·히스토리』, 휴머니스트, 2006, 173쪽.

하나후사 도시오·하나후사 에미코, 고향옥 역, 『소송과 한국의 원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한 28년의 기록-관부재판』, 도토리숲, 2021.

Kim, Elaine H. and Chungmoo Choi(eds.),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New York: Routledge, 1997.

Kwon, Heonik, *The Other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Chen, Kuan-Hsing, *Asia as Method: Toward Deimperi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Yoneyama, Lisa,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논문

강가람, 「2000년 여성국제법정을 통해 본 초국적 여성 연대의 가능성-한일 사

- 회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6, 1-119쪽.
- 강경래, 「위안부 피해자 영상의 “포스트-기억 세대” 양식으로서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읽기」, 『인문논총』 제75권 4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229-262쪽.
- 권은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이미지화 한다는 것의 의미: 영화 〈귀향〉의 성/폭력 재현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4권 1호, 한국여성연구원, 2017, 3-28쪽.
- _____, 「일본군 위안부 영화의 자매애와 증언전수 가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7, 414-421쪽.
- _____, 「증언, 트라우마, 서사-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의 일본군 ‘위안부’ 영화」, 『아시아영화연구』 제12권 2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19, 7-32쪽.
-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 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3, 35-72쪽.
- 김지언, 「냉전기 한국사회의 기억의 정치학: 〈사르빈 강에 노을이 진다〉속 군인과 ‘위안부’ 표상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79-118쪽.
- 김청강, 「‘위안부’는 어떻게 잊혀졌나? 1990년대 이전 대중영화 속 ‘위안부’ 재현」,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1호,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149-193쪽.
- 김현경, 「냉전과 일본군 ‘위안부’: 배봉기의 잊혀진 삶 그리고 주검을 둘러싼 경합」, 『한국여성학』 제37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21, 203-236쪽.
- 문재원·조명기, 「관광의 경로와 로컬리티-부산관광담론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58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825-860쪽.
- 박정미, 「발전과 섹스: 한국 정부의 성매매관광정책, 1955-1988년」, 『한국사회학』 제48권 1호, 한국사회학회, 2014, 235-264쪽.
- _____, 「성 제국주의, 민족 전통, 그리고 ‘기생’의 침묵-‘기생관광’ 반대운동의 재현정치, 1973-1988년」, 『사회와 역사』 제10호, 한국사회사학회, 2014, 405-438쪽.

- 박현선, 「일본군 ‘위안부’의 영화적 기억과 크로노폴리틱스」, 『대중서사연구』 제 26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0, 175-209쪽.
- 손희정, 「기억의 젠더 정치와 대중성의 재구성: 대중 ‘위안부’ 서사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234-261쪽.
- 이지은, 「민족주의적 ‘위안부’ 담론의 구성과 작동방식」, 『여성문학연구』 제 47호, 한국여성문학회, 2019, 379-409쪽.
- _____, 「일본군 ‘위안부’ 운동 초기 증언의 교차적 듣기: 『조선인 군대 위안부(朝鮮人軍隊慰安婦)』(1992)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1993, 1997)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42호, 역사학연구소, 2021, 61-96쪽.
-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116-152쪽.
- 조경희, 「4장. 한일협정 체제하 재일조선인의 국적과 분단 정치」, 『‘나’를 증명하기-아시아에서의 국적·여권·등록』, 이정은·조경희 편, 한울아카데미, 2017, 119-144쪽.
- 주유신, 「위안부 영화와 역사쓰기의 새로운 도전:〈귀향〉과 〈눈길〉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51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95-111쪽.
- 최은수, 「1960년대 일본의 전쟁기억/주체/‘위안부’-‘위안부’ 언설과 영화표상」, 『아시아여성연구』, 제58권 3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9, 153-176쪽.
- 최은주, 「전후 일본의 조선인 위안부 표상, 그 변용과 굴절: 춘부전의 출판/영화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후 일본의 전쟁기억/표상/젠더」, 『페미니즘 연구』 제14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4, 3-28쪽.
- 키쿠치 나츠노, 「내셔널리즘에서 식민주의로: 오키나와 A사인 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2017, 137-161쪽.
- 허윤,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기억의 물화-일본군 ‘위안부’ 표상과 시민다움의 정치학」, 『구보학보』 제27호, 구보학회, 2021, 375-407쪽.
- _____,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소녀와 할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29호, 한국여성사학회, 2018, 131-163쪽.

Gluck, Carol, “Operations of Memory: ‘Comfort Women’ and the World,” eds., Jager, Sheila Muyoshi and Rana Mitter, *Ruptured Histories: War, Memory, and the Post-Cold War in Asia*,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p.47-77.

_____,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eds., Jie-Hyun Lim and Eve Rosenhaft, *Mnemonic Solidarity: Global Interventions*, Cham: Palgrave Macmillan, 2021, pp.73-104.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eds., Cary and Lawrence Grossberg,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Basingstoke: Macmillan, 1988, pp.271-313.

기타

권명아, 「‘대중혐오’와 부대감의 복잡성」, 『문학동네』 통권 87호, 2016 여름, 530-539쪽.

손열, 「위안부 합의 100일, 한일관계는 어디로」, 『EAI 논평』, 동아시아연구원. 2016.4.12. [http://eai.or.kr/data/bbs/kor_report/201604121730282.pdf] 2022.2.20. 검색완료.

송효정, 「현재적 의미가 봉쇄당한 고통의 무기력함」, 『문학동네』 통권 87호, 2016 여름, 540-549쪽.

오혜진, 「무수한 ‘말 걸기’의 역사, ‘아이 캔 스피크」, 『한겨레』, 2017.10.1.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3297.html>] 2022.2.20. 검색완료.

웹진 결 편집팀, 「대중매체를 통해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의 재현 <3부>-재현물로서 <허스토리>의 성공과 실패」, 2022.2.7. [<https://kyeol.kr/node/154>] 2022.2.20. 검색완료.

장수희, 「비명이 도착할 때: <귀향>을 둘러싼 각축전과 말없는 비평」, 『여/성이론』 제34호,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6, 226-236쪽.

<https://www.internationalcrimesdatabase.org/Case/981/The-Prosecutors-and-the-Peoples-of-the-Asia-Pacific-Region/> 2022.2.22. 검색완료.

Abstract

How Recent Films Portraying “Comfort Women” Represent the Cold War Regime
: An Analysis of the Korean Films *Herstory* and *I Can Speak*

Kim Hyungyung

Whereas previous films about so-called “comfort women” have focused on victims’ painful experienc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during the Asian-Pacific War, the films *Herstory* and *I Can Speak* represent “comfort women” as a “subaltern that can speak” and the “reflective post-memory generation.” Indeed, these two films succeed at illustrating the mobilization of female bodies and sexualities under the Cold War regime even after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s well as self-reflection regarding the patriarchy that is within us. This demonstrates the advances made regarding public memory in Korea. However, the two films reenact Cold War relations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y depicting how the Japanese court in the 1990s did not listen to victims’ voices and how in the 2000s, the US Congress was the first official body in the world to listen to victims’ voices. In addition, I discuss how both films portray the post-memory generation of Koreans, revealing their indifference to the transnationalization and complex temporality of the “comfort women” issue. How can the entangled contexts of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regime be represented in Korean film in the context of the “comfort woman” issue? By raising this question and offering an analysis of these two films, this study aims to advance public imagination regarding the “comfort women” in Korea.

Key Words: “Comfort Women”, Cold War, Postcolonial Cold War regime, *Herstory*, *I Can Speak*

본 논문은 2022년 3월 23일에 접수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